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라는 금지 속에 반대생활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일 초 일 초 이기는 생활을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단계적인 생활이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다. 마귀의 종에서 탈피하는 생활이 순서대로 있어야 마귀의 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생활을 하려면 먼저 누구든지 내 몸이라는 사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반대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그것이 첫 단계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단을 밟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 1 단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미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그는 제 2 단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제 그대로 첫 단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사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사상이 없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뒷받침 되었을 때에 바로 이제 그대로 미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영생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금지들을 갖게 되고, 결과적

으로 하나님이라는 금지를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금지를 가지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죠?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사기를 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죄 짓지 않는 비결: 하나님이라는 금지를 가져라

그런고로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도 도둑질을 하려야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하나님이라는 금지를 가지면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은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줬지만은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뒷받침되는 근본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금지를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그는 죄를 지려야 할 수가 없다.

그런고로 그 마음이 항상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아무리 정욕이 올라와도 깨닫게 못해요. 그 금지와 영생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고로 스스로 절제를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금지 때문에 저절로 자기 행동에 제제가 가해지는 거죠? 그런고로 죄를 지려야 할 수가 없고, 그런고로 나쁜 마음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금지의 바탕의 마음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고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지 지켜야 할 수가 있고, 기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



죄 짓지 않는 비결을 논하시는 구세주 조희성님

의 자식이라는 금지를 가지니까 죄를 지려야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을 이 사람 스스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가운데서 얻어진 죄 짓지 않는 비결의 지식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사람이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리구리 멍멍구리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귀한 생명의 보배가 되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욕하고 저주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게 되지만 하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

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된다.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걸리려야 걸릴 수 없고, 늙으려야 늙을 수 없게 된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항상 그 마음이 희열에 차고 넘치니 안 늙어요. 사람이 늙는 것은 피가 썩어서 늙는 거예요. 왜 피가 썩느냐 하면 속이 썩어서 피가 썩는 거야. 속이 왜 썩느냐면 형제를 내 몸처럼 여기지 않고 남의 몸처럼 여기니까 못마땅한 생각이 나오고, 불만불평이 나오는 고로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고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정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예쁘게 생각을 하고 예쁘게 보는 것은 그건 개새끼나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건 짐승과 마찬가지로. 그런고로 이 사람이 이제 그대로 한참

젊었을 때 이 사람도 정욕이 일어났겠죠?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욕을 했다. '이 개새끼 같은, 이 독사 같은 새끼' 자신을 욕을 했다. 그러니까 정욕이 일어나다 정욕이 시들어지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욕을 퍼부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정욕을 이기는 생활을 했던 것이다. 한참 젊었을 때에는 정욕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구나 있는 것이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그런고로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때에는 그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개 같은 놈의 새끼, 이런 개 같은 마귀새끼' 욕을 퍼부으면 그 정욕이 식어진다.

일 초 일 초를 이기는 생활을 하라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이제 그대로 정욕을 이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 취급을 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마귀새끼를 저주하는 욕을 퍼부었던 것이다. 정욕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냥 모질게 욕을 퍼부으면 그 정욕이 죽어진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정욕이라는 것,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근본이다. 마귀의 근본이 음란이기 때문에 음란을 이겨야만 하나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음란을 못 이겨가지고는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음란을 이겨야 그 다음에 영생의 확신도 되고, 음란을 이겨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누구의 죄도 내 죄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금지들을 갖게 되면서 영생의 확신은 물론 이겨나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생각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영생의 소망이 꽉 차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희열이 차고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봐도 아름답고, 저걸 봐도 아름답고, 뭘 봐도 마음이 기쁘고, 같잖은 날이기도 처녀들이 웃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순수하고, 기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즐거우면 그

렇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한테 육천 년간 노예생활 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대로 마귀 속에서 석방시켜주는 구세주를 만나서도 마귀 속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하나님 안 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저주 받은 자식이다. 이 사람이 마귀 속에서 석방되는 비결, 하나님이 되는 비결,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고 죽지 않는 비결도 가르쳐 주죠?

이 사람이 학생 시절에 기회를 간파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그런 유명한 격언을 이 사람의 선생님께서 들었던 것이다. 기회라는 것은 딱딱하는 순간, 그 순간을 간파하지 못하면 평생을 고생하게 되고, 또한 순간을 간파하지 못하면 순간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순간을 실수하지 않고, 순간순간 일 초 일 초를 이기는 생활을 하면 그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일 초 일 초를 명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런 습관을 버려야죠? 그래서 일 초 일 초 하나님의 마음, 일 초 일 초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평상시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이제 그대로 누구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고 멸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빈지는 복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 상태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상전으로 모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다.*

1991년 8월 13일 말씀 중에서



피의 원리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우주 만물과 인간은 창조가 아닌 마귀(음양의 신)에게 점령당한 하나님(중성의 신)

하나님이 마귀권세, 사망의 신에게 패하여 현재의 우주만물과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지고 마귀가 이겼다. 그리하여 승리의자의 노름으로 천국을 잃게 되었고 좌악세상이 되었다. 마귀세상이 되었으니 괴롭고 고통과 죽음이 세상이 되었다. 세상에서도 남자가 양(陽)이고 여자가 음(陰)이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인고로 양음(陽陰)이라 못하고 음양(陰陽)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남자가 외(外)이고 여자가 내(內)이지만 외내(外內)라고 못하고 내외(內外)라고 통상 말하는 것이다. 위는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유록의 도부신인(桃符神人) 편에 기록된 태초를 묘사한 상형이다.

인류의 보편적 사고는 대다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불가사의한 존재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계 내의 실상은 그와 같은 논리로는 도저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사고의 체계는 어디까지나 무지와 무능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의 상상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일 뿐이다. 이 세계 내의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완전하게 설명하려면 우주 배후에 있는 생명의 실재인 초월자 하나님(부처님)이 마귀권세(사망의 신)에게 패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만물과 인간 현상계가 만들어졌다고 하여야 모든 의문과 모순이 풀리게 된다.

본래 삼라만상의 우주만물과 인간은 높고 높은 존재에서 낮고 낮은 존재로 의 비극적 타락을 가져온 것이다. 그 래야만 왜 세상이 음양의 상대성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는지, 왜 즐겁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생의 본질적 의문이 완전히 이해되게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만물의 탄생과 인간 존재의 비밀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길만이 바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 넣어 인간의 진면목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다.

영원영원 전에 너무나 찬란했던 존재가 이토록 참담한 인간으로의 타락 내지 변질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만물과 모든 생명체는 썩고 죽어 짐에서 벗어날 길 없는 외길을 걸어야만 했다. 자손만대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비극적 운명을 피할 길 없는 피내림 현상(피의 유전)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인간의 타락론은 하나님(중성)과 대립적인 마귀(음양)를 설정함으로써 이 세상의 부당한 악과 고통, 모순, 갈등 등의 유래에 대한 너무나 합리적인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 삶과 죽음, 남자와 여자, 낮과 밤 등과 같은 이 세계내의 이원적 뒤엉킨 결과를 통쾌하게 이해하게끔 된다. 전지전능한 유일신(하나님)에 의한 창조관으로는 도저히 이 세계의 악과 부조리를 일관성 있는 논리로써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우주와 인간

의 기원에 대한 설명의 틀은 놀랍도록 세상과 인간을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자 원동력으로 작동된다. 이 세계내의 모든 문제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한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 잃어버렸던 본성을 인간 자신 스스로가 그 본성을 회복해야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기 스스로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니 누구(의타적 존재)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가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인간 완성, 본래의 신성(神性)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해로운 담배를 피웠으면, 자신 스스로가 담배를 끊어야 하고, 길을 잘못 갔으면 곧장 되돌아와서 다시 바른 길로 가야 한다. 누구 탓이라 할 것도 없이 인간 스스로가 타락의 길로 빠졌다면, 인간 스스로가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능하지도 않는 초월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을 구하려는 요행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간에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인

간의 찬란한 삶의 보석을 우리 자신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모든 채 밖으로만 찾아 헤매었다. 영원한 자유와 행복, 죽음이 없는 세상을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어 보았지만 여전히 미로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실존과 본성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여러 이론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놀랍도록 발달한 근대의 선진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어느 정도 인간 본성에 대한 광복할 만한 이론을 말하고 있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심리학의 일대 혁명을 가져온 프로이드는 19세기말 비엔나에서 신경과 수련을 받았다. 수련과정에서 그는 부분 마비, 진전(떨림), 정각상실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러한 신체증상은 정서적 혼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증후군을 히스테리(hysteria)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프로이

드의 정신분석이론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얻어진 것이었다. 인간의 성격, 동기 및 심리장애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프로이드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의 하나는 무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것이다. 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 내었고, 그것의 발현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재 심리학의 대가인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이란 본래 선한 존재이므로 진선미(眞善美)를 숭상하고 따르며,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고, 자아실현을 통하여 인간 완성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 하며,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랑과 소속욕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 욕구와 마지막 욕구가 자아실현과 자기완성의 욕구를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